

영어졸업인증제의 현황 및 방향모색

방영주, 양미란*

명지대, 동아방송예술대

Bang, Youngjoo & Yang, Miran. (2011). Graduation qualification for English proficiency in universities. *Modern English Education*, 12(4), 282-302.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graduation qualification for English proficiency implemented in 37 universities in Korea. Policies and regulations of the English graduation qualifications were collected from the websites of the universities and examined in terms of the beginning school year, types of tes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alternatives for disqualified student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since Sungkyunkwan University introduced the graduation qualification in 1996 for the first time, the number of universities adopting the system has been constantly on the rise. Such findings suggested that, by including English proficiency as a part of graduation requirements, the universities reinforced their efforts to fulfill the social expectations for college graduates.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most universities adopted TOEIC and, TOEFL as legitimate tool for qualification tests, and that the minimum test score for qualification varied from college to college, or major to major, in a university. Finally, it was found out that the alternative qualification tools for the students, who failed to obtain the minimum test scores, varied widely among these universities.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universities or educational organizations planning to implement the graduation qualification for English proficiency by enabling them to devise a more effective and advisable policy based on a closer investigation of it.

[graduation qualification for English proficiency/ graduation certification/
영어졸업인증제/졸업인증제]

* 제1저자: 방영주, 교신저자: 양미란

I. 서론

최근 몇 년간 국내 대학의 영어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정책이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문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영어교육 목표도 교양의 증진 또는 전공 학문연구를 위한 외국어 학습이라는 전통적인 교육목표로부터 국제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어의사소통 능력의 훈련과 영어 상용국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국제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이라는 교육목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새로 설정된 교육목표에 발맞추어 대학들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변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는 졸업 학점 외에 별도의 졸업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영어졸업인증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영어졸업인증제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을 대학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설정하여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이다 (방영주, 2004).

영어졸업인증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결과가 성공을 보이게 됨에 따라 여러 대학들이 이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은 대학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시도로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제도의 일환으로서 영어졸업인증제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대학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시도로 영어졸업인증제를 제도화하는 방침을 권장하고 있어서 향후 졸업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들의 영어졸업인증제도에 대한 실체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영어졸업인증제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도입 및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대학의 영어졸업인증제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영어졸업인증제의 배경

영어졸업인증제는 각 대학들이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학교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배경은 넓은 맥락에서는 20세기말부터 이루어진 교양교육 (liberal education)에서 ‘사회적 실천 (social practices)’에 기반을 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양교육의 개념은 교양 있는 개인을 배출하기 위해 지성과 합리성 또는 자율적 선택능력을 기르는 것에 교육초점을 둬으로써 개인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반면에, 실제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준비, 정의, 시민의식,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간과하게 됨으로 특정한 사회적 가치나 실천을 교육에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 실천’에 입각한 교육은 개인적인 선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향상에 관련된 가치, 사회적 선과 유용성의 가치의 조화를 가져오는 교육개념으로서 21세기를 특징짓는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론적 입장이다 (유재봉, 1999).

또 다른 맥락에서 영어졸업인증제는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인 구성주의 관점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에도 적절히 부합한다. 학습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지식의 형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지적 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에 대해서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인식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교사가 전달하는 정보와 지식을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서의 학습자라는 종래의 관념이 지양되고, 대신 정보추구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이 출현하게 된다 (최경, 2006; Wilson, 1996).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중심 교육체계를 통해 수동적인 학습에서 능동적인 학습으로, 교사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자 주도적 내지 상호 주도적인 학습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Zimmerman (2000)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업성취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여 학습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조절하며,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목적을 향해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적극적 학습활동 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최선의 의미에서 영어졸업인증제는 국가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제도임은 물론, 학생들에게 영어능력 향상 및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학업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최근에 형성된 이러한 교육철학적인 배경에 부응하려는 하나의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졸업의 형식적 요건인 이수학점 외에 별도의 졸업요건으로 일정한 성적취득을 요구하는 영어졸업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졸업예정자들에게 학습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아 초기에 관망하던 여러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영어졸업인증제는 1996년 성균관대가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그 이후 여러 대

학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어졸업인증제에 관한 실체적인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구체적 조사로는 성명희 (2005)가 소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능력인증제와 졸업인증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의 졸업인증제와는 달리 능력인증제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학생의 영어능력을 인증해줌으로써 영어학습의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어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을 폭넓게 고찰하고 각 대학의 인증제를 유형, 평가방법 그리고 운영방식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I. 영어졸업인증제 현황 분석

1. 조사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전국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홈페이지상에 영어졸업인증제에 관한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학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영어졸업인증제 규정 및 운영방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위해 온라인 자료가 다소 불명료한 경우에는 각 대학의 교무과 또는 학적과를 통해 문의함으로써 상세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총 36¹ 개 대학의 영어졸업인증제 시행 연도, 인증기준, 인증기준 점수, 대학별 적용대상, 인증취득 기한, 미인증자 (수료자)에 대한 대체방안에 대해 고찰한 후, 제2 외국어 포함한 선택적 영어졸업인증제 실시하는 대학 및 졸업인증 영역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대학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2.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대학과 시행 연도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교로는 연구자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1996년에 실시한 성균관대를 비롯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학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국공립 및 사립대18개 대학과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의 국공립 및 사립대 18개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학들이 영어졸업인증제를 시행한 시점을 조사해 본 결과, 2000년 이전에 성균관대와 경기대가 실시하였고, 2000년도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2001년도 강원대, 동국대 (서울), 세종대, 숙명여대, 안양대, 한국항공대; 2002년도 명지대, 연세대 (원주), 인천대;

¹ 동일대학 양 캠퍼스의 경우에는 자료분석을 위해 2개 대학으로 적용한다. 즉 가천대(인천), 가천대(경원), 단국대(죽전), 단국대(천안), 동국대(서울), 동국대(경주)을 각기 1개 대학으로 취급한다.

2003년도 광운대, 2004년도 한국외대; 2005년도 총신대; 2006년도 가천대 (인천), 서울과기대, 상명대, 서강대, 한세대; 2007년도 건국대 (충주), 단국대 (죽전/천안), 인제대; 2008년도 동국대 (경주), 한밭대; 2009년도 가천대 (경원), 경상대, 부산대, 성신여대, 수원대, 아주대; 2011년도 국민대; 서울시립대는 2012년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영어졸업인증제를 적용한다.

그 외 표 1에 제시된 36 대학들은 영어졸업인증제를 현재까지 실시해 오고 있으며 졸업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대학들이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외국어 능력의 배양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영어능력시험의 일정한 성취도를 졸업요건으로 부과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목표를 제고할 뿐 아니라 현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적극 부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1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대학과 시행 연도

시행 연도	대 학
1996 년도	성균관대 ²
1998 년도	경기대
2000 년도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2001 년도	강원대, 동국대 (서울), 세종대, 숙명여대, 안양대, 한국항공대
2002 년도	명지대, 연세대 (원주), 인천대
2003 년도	광운대
2004 년도	한국외대
2005 년도	총신대
2006 년도	가천대 (인천), 서울과기대, 상명대, 서강대, 한세대
2007 년도	건국대 (충주), 단국대 (죽전), 단국대 (천안), 인제대
2008 년도	동국대 (경주), 한밭대
2009 년도	경상대, 가천대 (경원), 부산대, 성신여대, 수원대, 아주대
2011 년도	국민대
2012 년도 졸업대상자	서울시립대

² 성균관대는 1996년부터 인성품·국제품·정보품을 합친 삼품제를 도입하여 1996~1998년도 입학생은 인성품과 국제품(외국어인증)인증을 취득해야 했고, 1999년도 입학생부터는 삼품제의 모든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3. 영어졸업인증 기준

1) 외부공인시험에 의한 인증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36대학들이 영어졸업인증 기준으로 외부공인시험의 일정 기준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졸업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영어졸업인증 기준이 되는 외부공인시험으로는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TOEIC SPEAKING, OPIC, TOSEL, G-TELP, FLEX 이 있고, 일부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험을 통해서 인증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표 2에서는 학교에서 규정한 영어졸업인증 기준이 되는 시험유형을 대학별로 나열해 보았는데, 36개 대학 모두가 TOEIC시험과 TOEFL시험을 영어졸업인증 기준이 되는 시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천대를 비롯하여 17개 대학은 외부공인시험 TOEIC, TOEFL, TEPS을 영어졸업인증시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9개 대학들은 TOEIC과 TOEFL외에 1~2종의 외부공인시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험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외부공인시험으로 TOEIC과 TOEFL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인증 자격을 위해 외부공인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점수뿐만 아니라 교내 모의시험 점수를 반영하기도 한다. 명지대를 비롯해서 일부 학교는 처음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할 때는 인증기준으로 외부공인시험TOEIC만을 인정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여러 외부공인시험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영어졸업인증제를 강화하여 2010년도 입학생부터는 외부공인 시험에 의한 졸업자격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인증 점수 외에 추가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문대학의 경우, 말하기와 쓰기능력을 강화하여 말하기능력으로는 TOEIC Speaking, TEPS Speaking, OPIC Speaking, Versant (구 Phone Pass), TOEFL Speaking에서 기준점수를 취득해야 하고, 쓰기능력으로 TOEIC Writing, TEPS Writing, TOEFL Writing에서 기준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표 2
대학별 인증기준이 되는 외부공인시험 유형

시험유형	대 학
TOEIC, TOEFL, TEPS	가천대 (인천), 경상대, 건국대 (충주), 부산대, 단국대 (죽전/천안), 동국대 (서울/경주),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한국항공대, 세종대, 안양대, 연세대 (원주), 인하대, 한세대
TOEIC, TOEFL, TEPS, G-TELP	중앙대, 총신대, 한양대
TOEIC, TOEFL, IELTS, FLEX	한국외대*
TOEIC, TOEFL, TEPS, IELTS	서울과학기술대, 한밭대

TOEIC, TOEFL, TEPS, G-TELP OPIC, TOEIC SPEAKING	성균관대, 아주대
TOEIC, TOEFL, TEPS, OPIC TOEIC SPEAKING	국민대
TOEIC, TOEFL, TEPS, IELTS OPIC, TOEIC SPEAKING	명지대, 인체대
TOEIC, TOEFL, TEPS, 교내자체 시험	강원대
TOEIC, TOEFL	광운대, 수원대, 인천대
TOEIC, TOEFL, 교내자체 시험	경기대, 상명대
TOEIC, TOEFL, TEPS, TOSEL, G-TELP	가천대 (경원)**
TOEFL, TEPS, TOEIC SMU-MATE, OPIC	숙명여대***

*FLEX (말하기/듣기): 한국외대에서 개발하여 2009년 9월 영어 국가공인자격 인증

**가천대 (경원): 법과대학은 TOSEL시험 적용, 정보통신공학부는 G-TELP시험 적용

** SMU-MATE (Speaking/Writing): 숙명여대에서 개발한 시험

2) 영어능력시험 외 인증

36개 대학 중에서 8개 대학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졸업인증 기준으로 영어능력 시험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에서 규정하는 강좌 또는 그에 준하는 다른 사항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졸업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경상대는 인증기준으로 공인어학시험, 학교에서 규정한 과목 (대학영어I & II) 이수, English Zone에서 영어 프로그램 이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가천대 (경원)는 Academic English II, III, IV 모두 이수할 경우에 졸업자격이 부여된다. 부산대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외에 공인어학능력 시험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성신여대는 입학 당시 영어능력인증 기준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교양영어 1 & 2를 각 과목 평점 3.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안양대는 학교에서 규정한 영어기준점수를 받지 않아도 1학기 이상 해외 어학연수 이수한 자에게도 영어졸업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를 취득하는 것 외에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전공과목 원어강의를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국대 (서울)는 2007년도부터 영어강의 6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2009년도 입학생부터는 8과목 이수하는 것으로 강화하였다. 성균관대는 2009년도부터 전공과목 5과목을 국제어 (영어/일본어/중국어)강의를 통해서 A학점 이상 취득해야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중앙대도 2007년도 이전 입학생은 전공 원어강의 2과목을, 2008년도부터는 3과목 이상 이수하는 것을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3

영어능력시험 외 인증 기준

대 학	인증기준
건국대 (충주)	기초영어영역 (2학점)과 글로벌 언어영역 (2학점) B이상 취득
경상대	공인어학인증시험; 교과목 (대학영어I & 대학영어II) 이수; English-Zone프로그램이수 택 1
동국대 (서울)	2007년도부터 영어강의 6과목이수, 2009년도부터 8과목 이수 필수
서울시립대	2010년도 신입생 중 인문대학의 경우 추가인증 기준 강화
중앙대	2007년도 이전 전공영어강의 2과목, 2008년도부터 3과목이상 이수 필수
성균관대	2009년도부터 전공과목 5강좌 국제어 (영어/일본어/중국어)강의 A학점이상 취득
가천대 (경원)	Academic English II, III, IV 이수
수원대	유럽학부와 동양어문학부는 전공언어 시험으로 대체

4. 인증 기준점수

외부공인시험으로 영어졸업인증 기준을 삼는 경우에 기준점수는 대학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기도 하고 학과 (부)별 또는 단과대학별로 점수를 다르게 하여 인증기준 점수에 차별화를 두는 학교도 있다. 표4는 현재 각 대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졸업인증 외부공인시험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단과대학별 또는 학과 (부)별로 다른 기준점수로 차등을 두고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하점수에서 최고점수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졸업인증 기준점수로 TOEIC 최하 500점에서 최고 800점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조기에 졸업인증제를 도입했던 일부 학교들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점수를 약간씩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에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를 취득할 경우에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수에 따라 차등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학교로는 성균관대, 국민대, 인제대, 인하대, 인천대가 있다. 성균관대는 졸업자격 수준인 ‘품’과 우수한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품’으로 차별화를 준다. 인천대는 영어졸업인증 자격을 줄 때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성적에 따라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을 주고 있다. 인제대는 기준점수를 취득하여 통과한 학생에게 ‘합격’, 점수가 우수한 학생에게는 ‘합격 (우등)’을 성적표에 표기한다.

표 4
대학별 영어졸업인증 기준 점수

대학	인증점수									
	TOEIC	TOEFL			TEPS	IELTS	G-TELP	OPIC	TOEIC SPEAK- ING	기 타
		PBT	CBT	IBT						
광운대	650	-	193	-	-	-	-	-	-	-
가천대 (인천)	500 ~600	-	133 ~163	53 ~65	380 ~470	-	-	-	-	-
강원대	550	483	160	56	430	-	-	-	-	-
건국대 (충주)	500 ~700	-	52~75	-	410 ~600	-	-	-	-	-
경기대	550	-	-	55	-	-	-	-	-	-
경상대	800	-	-	86	710	-	-	-	-	-
가천대 (경원)	350 ~800	300 ~570	100 ~230	50 ~88	350 ~689	-	55	-	-	*
국민대	700 ~850	-	200 ~243	79 ~96	644 ~783	-	-	IM	130 ~150	**
단국대 (죽전)	700 ~800	532 ~621	532 ~621	80 ~94	213 ~240	-	-	-	-	-
단국대 (천안)	550 ~800	390 ~550	137 ~240	58 ~94	566 ~701	-	-	-	-	-
동국대 (서울)	600 ~800	568	177 ~227	87	478 ~728	-	-	-	-	-
동국대 (경주)	650 ~700	-	200 ~217	73~78	524 ~575	-	-	-	-	-
명지대	500 ~700	450 ~540	133 ~207	45 ~76	400 ~580	4.5 ~6	-	IL ~IH	100 ~130	-
부산대	520 ~750	-	213 ~270	80 ~110	561 ~864	-	-	-	-	-
상명대	500 ~600	470 ~500	-	53 ~61	-	-	-	-	-	-
서강대	700 ~850	-	210 ~225	84 ~102	693 ~842	-	-	-	-	-
서울 과기대	550 ~650	-	133 ~190	-	433 ~539	5	-	-	-	-
서울 시립대	750 ~800	567 ~585	227 ~240	87 ~94	633 ~695	-	-	-	-	-
성균관대	550 ~900	-	163 ~251	57 ~101	450 ~810	-	1-61~ 3-77	NH ~IM	110 ~150	-
성신여대	700	537	203	75	602	-	-	-	-	-
세종대	600 ~700	-	173 ~203	-	500 ~602	-	-	-	-	-
수원대	300 ~600	-	-	39 ~63	-	-	-	-	-	-

숙명여대	740 ~870	-	-	75 ~95	540 ~720	-	-	IL ~IH	130 ~150	***
아주대	730	534	200	72	605	-	2-67~ 3-89	IL ~IM	110 ~120	-
안양대	430 ~500	386 ~470	86 ~150	-	335 ~450	-	-	-	-	-
연세대 (원주)	625 ~760	500 ~550	173 ~213	-	600 ~680	-	-	-	-	-
인제대	350 ~550	400 ~457	-	-	345 ~440	5.5 이상	-	IL 이상	120 이상	-
인천대	500 ~800	477 ~590	152 ~190	53 ~96	-	-	-	-	-	-
인하대	500 ~800	470 ~575	150 ~231	52 ~89	390 ~730	-	-	-	-	-
중앙대	600 ~900	500 ~609	173 ~254	61 ~101	450 ~695	-	1-70~ 3-98	-	-	-
충신대	600 ~700	-	177 ~207	-	501 ~600	-	2-56~ 3-91	-	-	-
한국외대	650 ~750	523 ~550	193 ~215	64 ~82	-	5.5 ~6	-	-	-	****
항공대	600 ~800	500 ~600	-	61 ~88	480 ~700	-	-	IM ~IL	120 ~140	-
한밭대	500 ~600	460 ~490	140 ~170	45 ~60	400 ~475	4.5 ~5.5	-	-	-	-
한세대	350 ~550	-	100 ~170	-	300 ~470	-	-	-	-	-
한양대	310 ~900	400 ~600	97 ~250	32 ~100	267 ~625	-	2-54~ 3-87	-	-	-

*경원대: TOSEL 608점 이상

**KMU-CEC (국민대-캐나다 유학·취업 연계프로그램): Level 3

SMU-MATE Speaking /Writing: Level 2-4 *FLEX (Listening /Reading): 601-701 점

5. 영어졸업인증제 적용대상

36개 대학 중에는 영어졸업인증제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 일부 학과 (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 또는 일부 단과대학만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대를 비롯하여 25개 대학 (69.4%)이 면제 대상자 (군위탁생, 특수교육 대상자, 귀순동포, 체육 특례자, 외국인학생)를 제외하고는 전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운대를 포함하는 10개 대학 (27.8%)은 일부 2-3학과 (부)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 (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영어졸업인증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부 학과 (부)는 학교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예술계열과 체육계열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광운대와 수원대는 전공관련 외국어 졸업인증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충신대는 2005년도 입학생부터 영어졸업인증제를 교회음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학과생에게 적용하다가 2011년 5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과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표5

대학별 영어졸업인증제 적용대상

적용대상	대 학	대학수
전체학생 대상으로 실시	가천대 (인천/경원), 강원대, 건국대 (충주), 경기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죽전/천안), 부산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강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 연세대 (원주), 인제대, 한국항공대 중앙대, 한양대, 한세대, 한국외대	25 (69.4%)
일부 학과 (부) 제외한 전체 학과 대상으로 실시	광운대, 동국대 (서울/경주), 명지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한밭대	10 (27.8%)
일부 학과만 실시	총신대 ³	1 (2.8%)

6. 인증취득 기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각 대학이 정한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에 도달한 학생이 시험점수를 기일 내에 대학에 제출한 경우에 졸업자격을 부여하는데, 먼저 학생에게 졸업인증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학교에서 취득여부를 검토하여 학교에서 규정한 기준점수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인증하여 성적증명서에 P (합격), 미인증자 (수료자)의 경우는 성적증명서에 F (불합격)로 처리하여 수료자로 남게 된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졸업인증을 위한 성적제출 기한은 29개 대학 (80.6%)이 졸업 전까지 학교에서 규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7개 대학 (19.4%)은 졸업학기 1~2학기 이전까지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졸업 전까지 제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기한이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졸업사정 직전까지 취득하면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동국대와 한세대는 졸업학기 2학기 전까지로 인증자격 취득기한을 제한하고 있고, 경상대, 가천대 (경원), 서울시립대, 수원대는 졸업학기 1 학기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들은 학생들이 졸업인증에 미리 대비하고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졸업 전에 학교 부속기관에서 영어집중 과정을 통하여 영어능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졸업인증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졸업인증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³ 총신대는 2005년부터 영어졸업인증제를 교회음악과를 제외한 전 학과생에게 적용하다가 2011년5월 이후 일부 학과만 실시하고 있다.

표 6
대학별 성적제출 기한

기 한	대학	대학수
졸업학기 1~2학기 전까지	6학기까지: 동국대 (서울), 한세대 가천대 (경원), 경상대, 경원대, 동국대(경주), 서울 시립대, 수원대	7 (19.4%)
졸업학기까지	가천대 (인천), 강원대, 건국대 (충주), 경기대, 광 운대, 국민대, 단국대 (죽전/천안), 명지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 대 (원주),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충신 대, 한국외대, 한밭대, 한양대, 한국항공대	29 (80.6%)

7. 미인증자 (수료자)에 대한 대체방안

36개 대학들은 학교에서 졸업요건으로 규정한 인증 기준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공인시험에서 졸업인증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취득하여 해당 대학에 제출할 때까지 수료로 처리한다. 이 중 31개 대학 (88.9%)은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들이 매 학기 누적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인증자격 취득을 위한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료자들에 대한 인증자격 대체방안은 각 대학별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졸업인증을 위한 대체과목 또는 지정과목 이수, 영어졸업인증 대체특강 이수, 별도 영어 특별프로그램 이수,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특별시험 통과, 다른 인증영역으로 대체 등이 그것이다.

대체방안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졸업인증을 위한 대체과목 또는 지정과목을 개설하여 수강이수 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가천대를 비롯하여 14개 대학 (38.9%)은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가천대 (인천)는 학사과정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대체인정과목 B학점 이상, 해외 어학연수에서 평가점수 B학점 이상, 해외자매학교 학점교류에서 C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건국대 (충주)는 기초영어영역과 글로벌 언어영역에서 B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기초영어영역, 글로벌언어영역, 전공영어 강의, 그리고 언어교육원 강좌에서 총 5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인증 자격이 주어진다.

광운대는 졸업예정학기에 ‘인증영어’와 대체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대체과목은 학생이 취득한 토익점수에 따라 이수학점이 다른데, 600~649점은 3학점, 550~599점은 6학점, 500~549점은 9학점, 450~499점은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서울과기대는 대체과목 3과목을 이수할 경우에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인하대는 2007년까지는 교양선택 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대체과목을 축소하고 졸업인증 대체과목을 반드시 수강 이수하게 한다. 아주대는 6학기까지 학부에서 정한 인증기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7학기부터 2개의 대체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인증자격을 얻는다.

연세대 (원주)는 학년별 영어능력인증제를 실시하며 2학기 말과 4학기 말에 TOEIC 또는 TOEFL 기준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학기인 3학과 5학기에 대체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국항공대는 2004년도 입학생까지는 미인증자들이 대체과목들을 선택하여 이수하거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졸업인증시험을 취득한 경우에 인증자격을 부여했으나, 2005년도 입학생부터는 이러한 대체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학교에서 규정한 외부공인시험 기준점수를 제출할 경우에만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적용하는 대체방안으로서 9개 대학 (25%)들은 졸업인증을 위한 대체 특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방안을 적용하는 학교로는 단국대 (죽전/천안), 동국대 (서울), 명지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안양대, 인천대, 한밭대가 있다.

그 외 4개 대학 (11.1%)은 학교 부속기관 (언어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체방안을 적용하고 있고, 2개 대학 (5.6%)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내 특별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강원대는 졸업인증제로 외국어인증과 컴퓨터인증, 독서인증 등 3개 인증영역 중에서 2영역의 인증을 받거나,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언어과정을 9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외국어 원어강의 두 과목 이상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하면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인증기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들에게 학교에서 규정한 외부공인시험 기준점수 취득 외에 다른 구체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학교로는 경상대, 부산대, 성신여대, 인제대, 총신대, 한국항공대가 있다. 이 학교들 중 일부는 이 제도를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대체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7

대학별 미인증자 (수료자)에 대한 대체방안

대체방안	대학	대학수
대체과목 또는 지정과목 이수	가천대 (인천/경원), 건국대 (충주), 국민대, 동국대 (경주), 광운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주대, 연세대 (원주), 인하대,	14 (38.9%)
영어졸업인증 대체특강 이수	단국대 (죽전/천안), 동국대 (서울), 명지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안양대, 인천대, 한밭대	9 (25%)
영어 특별 프로그램 이수	중앙대, 한국외대, 한세대, 한양대	4 (11.1%)
특별시험 통과	경기대, 수원대	2 (5.5%)
다른 인증영역 선택 가능	강원대	1 (2.8%)
외부공인시험 기준점수 취득	경상대, 부산대, 성신여대, 인제대, 총신대, 한국항공대	6 (16.7%)

8. 제2 외국어 포함한 선택적 영어졸업인증제 실시하는 대학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개 대학들 중에서 9개 대학 (25%)은 제2 외국어 포함한 선택적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에 영어능력을 포함한 외국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어를 반드시 필수로 인증 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니며 학교에서 규정하는 영어 외 제2 외국어영역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여 기준점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졸업인증을 받게 된다. 이런 대학으로 가천대 (인천), 강원대, 건국대 (충주), 경기대, 동국대 (경주),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주), 한밭대이다. 이 대학들의 외국어 졸업인증제로 적용하는 언어는 영어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된 언어는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이다. 특히 연세대 (원주)는 졸업학위 취득을 위해 교양영어과목을 4학기 동안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 과목들을 평균 A학점으로 취득하거나, 공인어학능력시험기준점수를 취득하거나, 또는 외국어교양선택과목 2과목에서 B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표8

제2 외국어 포함한 선택적 영어졸업인증제 시행하는 대학

대 학	언 어
가천대 (인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자 택 2
강원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택 1
건국대 (충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택 1
경기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택 1
동국대 (경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택 1
서울과기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택 1 또는 전공교과시험 기준점수 취득
성균관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문 택1
연세대 (원주)	교양영어 4개 학기 이수 기본사항 외 평균 A학점 취득; 공인어학능력 시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기준점수 취득; 외국 교양선택과목 2과목 이수 B학점 취득 3가지 중 택 1
한밭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택 1

9. 졸업인증 영역 확대

36개 대학들 중에 13개 대학 (36.1%)은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되 인증 기준을 영어능력시험 외에 다른 영역을 추가하여 졸업인증 자격을 강화하는 학교

들도 있다. 표 9에서 이러한 대학들을 유사한 인증유형을 적용하는 학교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영어인증 (제2외국어 포함) 외에 다른 필수인증을 취득해야 졸업자격이 부여되는 학교들도 있다. 연세대 (원주), 한국항공대, 한국외대는 졸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외국어능력과 정보기술능력 두 분야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외대는 2004년도부터 시행된 졸업인증 필수요건으로 영어졸업인증제와 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모두 충족해야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2007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요건으로 외국어인증제가 시행되어 영어 외 다른 제2외국어인증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은 한국외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인시험 FLEX (듣기/읽기)를 적용한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영어졸업인증 외에 원어강의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전공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국민대는 영어인증 외에 필수인증으로 전공과목 영어강의 3과목 이상 이수과 글로벌에티켓 교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국대 (서울)는 전공과목 영어강의를 2007학년 입학생은 6과목, 2009학년부터는 8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동국대 (경주)는 외국어시험 기준점수 취득, 외국어시험 응시요건 (각 언어권 모의시험 응시 회수), 그리고 외국어 (영어/중국어/일본어) 강의 2과목 이상 이수할 경우에만 졸업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성균관대는 졸업인증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한 학교로서 1996년도부터 2006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3품 (인성품, 국제품, 정보품) 모두 인증 받아야 졸업했으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3품 이수 이외에 국제어 (영어/중국어/ 일어)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2010년도 입학생부터 인문대학의 경우 외부공인시험 기준점수 취득 외에 추가인증 3가지 (영어 말하기/쓰기 인증기준 충족, 제2외국어 인증기준 충족, 영어 외부공인시험만 선택할 경우 인증점수 강화) 중 택일하여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경상대와 인하대는 필수인증인 영어인증 외에 선택인증을 충족해야 졸업자격을 부여하는데, 경상대는 인성적 자질을 요하는 개척인증제 (사회봉사, 글로벌 리더십, 독서)의 1영역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에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인하대는 선택요건으로 국제인재인증 (영어 외 외국어 인증), 정보인재인증 (컴퓨터), 창의인재인증 (국내외 경시대회 우수자), 봉사인재인증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취득자에게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강원대는 졸업인증자격분야를 외국어, 컴퓨터, 독서영역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두 영역 이상 선택하여 기준점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졸업자격을 부여하며, 인증등급제를 적용하여 점수에 따라 인증등급을 최상, 탁월, 우수, 보통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단과대학별로 규정된 영어졸업자격인증, 졸업논문, 정보능력인증을 선택요건으로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영어졸업인증 외에 영어우수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9
졸업인증영역 확대

인증영역 유형	대 학	비 고	
영어인증 & 필수인증	정보기술영역	한국항공대	
	정보기술영역 & 외국어인증	한국외대	2007년부터 외국어인증 적용
	전공 영어강의 & 인성자질 영역	국민대	
	전공 영어강의	동국대 (서울)	2007년 입학자 6과목, 2009 학년부터 8과목
	원어(영어/중국어/일본어)강의	동국대 (경주)	
	제2외국어 인증, 영어 말하기/쓰기 인증, 외부공인시험 인증점수 강화	서울시립대	
영어 외 제2외국어선택인증 & 필수인증	정보기술영역	연세대 (원주)	
	정보기술영역 & 인성자질영역 & 국제어 강의	성균관대	2006년: 졸업논문과 3품인증 2007년: 3품인증 & 국제어 (영어/중국어/일어) 강의
영어인증 & 선택인증	인성자질영역	경상대	
	정보기술영역 & 인성자질영역	인하대	
	단과대학별로 영어졸업자격인증 & 졸업논문 & 정보능력인증 택 1	숙명여대	영어우수능력인증제 실시
	외국어인증 정보기술인증 인성자질영역 택2	강원대	인증등급제 (최상/탁월/우수)

IV. 요약

본 연구는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지방의 국공립 및 사립 36개 대학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각 대학의 영어졸업인증제 시행 연도, 영어졸업인증시험 유형, 졸업인증 기준점수, 적용대상, 성적제출 기한, 그리고 미인증자 (수료자)의 대체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1996년에 처음으로 졸업인증제를 실시한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은 영어졸업인증제를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 대학들이 졸업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대학별 영어졸업인증시험 유형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외부공인시험 TOEIC, TOEFL, TEPS시험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졸업인증 기준점수도 동일한 점수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학과 (부) 또는 단과대학별로 차별화를 두어 적용하는 학교도 있다. 영어 졸업인증제를 조기에 시행한 학교들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점수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특정 학과 (부)별 또는 단과대학별로 차별화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인증점수도 처음 시행했을 때의 기준점수를 약간씩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졸업하기까지 학교에서 규정한 기준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외부공인시험에서 졸업인증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취득하여 해당대학에 제출할 때까지 수료 상태로 남게 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더불어 졸업 후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영어졸업인증제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재 이 제도가 오히려 졸업예정자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졸업을 하지 못하는 미인증자 (수료자)의 숫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마다 미인증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방안은 학교마다 다른데 졸업인증 대체과목 또는 지정과목을 이수하는 방안, 영어졸업인증을 위한 대체 특강이나 별도의 영어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안, 특별시험을 통과하는 방안, 또는 다른 인증영역을 선택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인증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일부 학교들은 수료자들에게 별다른 구제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학교에서 규정한 외부공인시험 기준점수를 제출할 때까지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이외에도, 일부 학교는 인증영역을 일률적인 영어졸업인증보다는 다른 제2외국어 영역을 묶어서 시행하는 제2 외국어 포함한 선택적 영어졸업인증제 실시하기도 하는가 하면, 영어졸업인증제를 적용하되 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를 취득하는 방법 외에 다른 영역을 추가하여 졸업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하기도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총 36개 대학들의 영어졸업인증제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현 제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 보다 바람직한 시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졸업인증제가 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목표의

우선순위를 점유하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영어교육 목표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양 및 학문생활을 위한 도구적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었다. 반면, 최근 대학들의 영어졸업인증제 도입은 학교에서 규정한 인증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고취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시대의 사회적 요구, 즉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의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졸업인증기준이 공신력 있는 외부공인시험에 의존하는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기존의 외부공인시험을 위한 집중학습이 사실학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사실은 영어졸업인증제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이 제도를 안일하게 시행하기보다는 대학 차원의 대응책과 함께 신중하게 도입해야 함을 말해준다. 요컨대, 대학의 영어교육이 외부공인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어졸업인증제가 정규 교과과정에 유기적으로 연동되게 할 내실화된 교육과정의 개발이다.

둘째, 조사대상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영어졸업인증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학교의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구현하고 졸업인증제의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들이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면서 교양영어 과목을 토의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외부공인시험을 준비하는 사설교육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대학 내외에서 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적 추세를 적극 수용하되 대학이 대학교육의 고유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철학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의 재편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준별 학습, 소수반 편성, 양질의 교수자 확보, 다양한 평가모델 개발 등, 대학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대학이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적인’ 영어졸업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개설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과 (부) 또는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영어의 분야—학문적 읽기, 말하기, 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교 자체의 인증지표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야 하고, 또한 체계적인 시험관리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영어졸업인증제로 인한 사교육 의존성을 극복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학교 또한 영어졸업인증제를 통해 영어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셋째,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일부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인해 영어인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불만

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졸업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구현되기 위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어졸업인증제 보다는 학과 (부) 또는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로써 차별화된 인증영역을 적용하여 전공별 특성화를 기해야 한다. 이러한 차별화 또는 특성화된 인증영역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급속하게 재편되는 학문체계 및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전공에 적합하면서 그들이 미래에 일하게 될 사회의 요구에 부합한 능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바란다면 학생들의 교양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색에 있어서 최근 영어교육의 추세인 학습자 중심의 교과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교육 행정가들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협상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대학에서 규정한 인증 기준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가는 미인증자 (수료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학생들이 입학 당시부터 졸업인증제의 필요성과 제도의 실시방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각 학과별 또는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이 인증 취득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교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준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졸업을 앞둔 미인증자들을 위해 단순히 대체 교과목, 특강,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졸업학기 1-2학기 이전에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사전에 진단하고 학생들이 졸업인증 기준점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보충학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각 대학에서 졸업인증제의 달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업인증만을 강요한다면, 영어능력개발을 유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학생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맡겨버리는 결과가 되어 학교당국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졸업인증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 교육적, 환경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규과정의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가령 계절학기에 외부공인시험을 위한 강좌 및 특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가급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졸업인증제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한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로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조사 분석에 다소간의 미흡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영어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은 물론 현재 영어졸업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학들도 각 대학들의 실태를 정확히 또는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제도 도입이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또는 유사한 연구조사의 출발점으로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방영주. (2004). 영어능력인증제, 능력별교과과정, 그리고 대학 교양영어교육. *영어어문교육*, 9(2), 193-211.
- 성명희. (2005). 대학 영어인증제 고찰 및 제안. *영어교과교육*, 4(2), 97-111.
- 유재봉. (2000). 교육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교육학연구*, 38(3), 235-253
- 조세경, 문승철, 이강혁. (1997). 대학영어의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방안. *영어교육*, 52(4), 303-330.
- 최경. (2006).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외국어능력 성장*. 석사학위. 한국교원대학교, 충남.
- Wilson, B. (1996).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 Case studies in instructional design*.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Zimmerman, B. J.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13-3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가천대학교 : <http://www.gachon.ac.kr>
- 강원대학교 : <http://www.kangwon.ac.kr>
- 건국대학교 : <http://www.konkuk.ac.kr>
- 경기대학교 : <http://www.kyonggi.ac.kr>
- 경상대학교 : <http://www.gnu.ac.kr>
- 광운대학교 : <http://www.kw.ac.kr>
- 국민대학교 : <http://www.kookmin.ac.kr>
- 단국대학교 : <http://www.dankook.ac.kr>
-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명지대학교 : <http://www.mju.ac.kr>
- 부산대학교 : <http://www.pusan.ac.kr>
- 상명대학교 : <http://www.smu.ac.kr>
- 서강대학교 : <http://www.sogang.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http://www.seoultech.ac.kr>
- 서울시립대학교 : <http://www.uos.ac.kr>
- 성균관대학교 : <http://www.skku.edu>
- 성신여자대학교 : <http://www.sungshin.ac.kr>
- 세종대학교 : <http://www.sejong.ac.kr>
- 수원대학교 : <http://www.suwon.ac.kr>
- 숙명여자대학교 : <http://www.sookmyung.ac.kr>
- 아주대학교 : <http://www.ajou.ac.kr>
- 안양대학교 : <http://www.anyang.ac.kr>
- 연세대학교 : <http://www.yonsei.ac.kr>

인제대학교 : <http://www.inje.ac.kr>
인천대학교 : <http://www.incheon.ac.kr>
인하대학교 : <http://www.inha.ac.kr>
중앙대학교 : <http://www.cau.ac.kr>
충신대학교 : <http://www.chongshin.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 <http://www.hufs.ac.kr>
한국항공대학교 : <http://www.kau.ac.kr>
한밭대학교 : <http://www.hanbat.ac.kr>
한세대학교 : <http://www.hansei.ac.kr>
한양대학교 : <http://www.hanyang.ac.kr>

방영주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영어과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Tel: (02) 300-0876
E-mail: yjbang@mju.ac.kr

양미란

동아방송예술대학 공통기초학부
456-717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동아예대길 47
Tel: (031) 670-6605
E-mail: miran@dima.ac.kr

Received 20 October 2011

Revised 4 December 2011

Accepted 13 December 2011